CARITAS WONJU

2009년 가을·겨울 〈제19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산타가 되어 주세요 ▶18면

9 라인댄스의 날

14 볼우아동 위한 온정의 굿샷

16 이제 물 걱정은 없어요

17 빠야따스 어린이 집 설계됐어요

18 산타가 되어 주세요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싣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 우리의 기도	최기식 신부
	카리타스란	
3.	느림의 미학, 여유를 갖고 삽시다	곽호인 신부
	회원기도문	
4.	"부끄러움을 가르쳐주시는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유홍열 회장
	오늘을 위한 기도	이해인 수녀
5.	편집인 데스크 - "나누세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영희 기자
6.	워싱턴의 공익방송 WBS 유관일 대표 인터뷰	신선애
7.	한 닢 한 닢 모아 사랑을 전하는 곳들	차명자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신선애
8.	라인댄스 DVD 판매합니다	정영희 기자
	결식아동돕기 라인댄스 강습	정영희 기자
9.	'라인댄스의 날' 성황리에	홍알벗 기자
10.	장애인들에게 녹음도서 제공	김마리 수녀
11.	녹음도서 소개합니다	유자경
12.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사회회칙 '진리안의 사랑'	미주 평화신문
14.	불우아동 위한 온정의 굿샷!	이종국 기자
15.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16.	이제 물 걱정은 없어요 - 인도네시아 플레로스 섬	알로이시우스 신부
17.	빠야따스 어린이 집 설계됐어요	김정임 수녀
18.	산타가 되어 주세요	유자경
19.	'푸르고 싱싱한 세상'을 향해 - 그랜드 빌리지 개점	신선애
20.	애완동물에게 축복을	이소영
21.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리사이클링'	차명자
22.	사랑과 정성의 속 넣은 김장김치	장해영
	허브농장 - 살림터	송창근
23.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정복희
	사랑을 나누며	박예진
24.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 아동결연	
26.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후원금 내역	
	축하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J. Galot
2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후원회 사무실	
	회원가입, 결연후원,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30.	광고 - 강원근 치과, Kim's Auto	
	광고 - Fairfax Memorial Park, 워싱턴 그래픽	
31.	광고 - Charlie H. Hong, 차명자 치과	
	광고 - 윤경자 치과, 훼어팩스 가정의학	
32.	광고 - WBS 워싱턴 TV 공영방송	

고국에서 온 편지

우리의 기도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원주교구 사회복지회장〉

생동감 넘치던 산과 들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어느새 겨울 옷으로 갈아 입고 앙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또 다른 새로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인사 드리고 싶은 회원님들, 성탄을 준비하고 또 곧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내일의 행복을 향해 주님의 축복으로 힘찬 출발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변화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연이든, 정치·경제·사회이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는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다는 과학문명 발전과 개발이 욕심에 의해 분별력을 잃을 때 엄청난 공포와 비참한 결과를 불러 오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인간을 위하고 인간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자연 안에든 인간 안에든 하늘이 만들어 주신 법과 질서를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의와 진리, 사랑과 평화와 같은 가치를 외면하고는 인간을 위한 참 변화는 없다는 말이지요.

금융파동이다, 경제위축이다, 경제위기다 하며 온 세계가 야단입니다. 정의와 공평성을 잃은 발전이 가져오는 불행의 한 국면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 지는 것이지요.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끼니 해결을 위하여 복지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요. 이런 때 여러 회원님처럼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 주고 인류 행복을 위한 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5년 동안 가장 기부를 많이 했다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 할 나이에 이름 공개를 거부하며 한 그의 자선 행위는 너무 아름다워 참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돈과 사회적 출세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며 가치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쳐다 볼 한 치의 여유도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에겐 한번쯤 멈추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계기를 주었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전 두 닢을 낸 과부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다고 여기실지 모르나 과부처럼 가장 큰 정성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감이 먹구름처럼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박한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온정과 인내로 빛을 전하고 사랑의 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일에 또 한 해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부탁 드립니다. 성탄과 새해를 맞아 기쁨과 보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 여유를 갖고 삽시다

곽호인 베드로 신부
〈카리타스 이사장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주임신부〉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말이 현대인의 대명사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이에 따른 빠른 소식의 유통과 정보의 홍수는 현대인을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바쁘게 사는 사람'만이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생겨, 바쁘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없는 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쁜척(?)하며 지냅니다.

또한, 한국 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사람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 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며 앞만 보고 바쁘게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일까요? 우리는 마냥 바쁘게 살다가 어느날 문득 삶의 방향을 잃어 버리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거지? 도대체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등등 한없는 회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때때로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국어 사전에 '여유'란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여유를 갖는다는 일을 사치이고 낭비인 것 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치관에 위배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암과 같은 인생의 큰 위기상황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본래 삶을 되찾게 하기도 합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쓴 '할아버지의 축복'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부모의 소원대로 도시로 나가 대기업에 취직하여 탁월한 추진력과 경영능력으로 중역이 되어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치유된 후 그는 사무실에 돌아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은 그가 다른 큰 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년후 시골로 가서 포도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농사였는데 그는 가족이 원하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병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 6장 30-31절에서 사도들은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결과 보고를 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한 것 등등 신이 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활동보고에 들떠있는 사도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편히 쉬도록 권고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마귀를 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대해서 한창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마을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휴식이나 방학은 없지만, 바쁜 세상살이를 떠나 잠시 하느님 말씀 속에 머무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잡는 여유는 꼭 필요하다고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한 여유를 가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을 잊고 한숨만 쉬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사에서 떠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주위에 없는지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한 때 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될 것 입니다.

회원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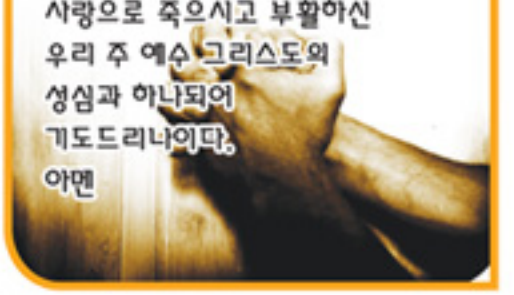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 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부끄러움을 가르쳐주시는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유홍열

〈원주 카리타스 버지니아 후원회장〉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고 겨울 회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원회 일을 맡으며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회지가 나올 때마다 인사말을 쓰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말솜씨가 있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에 와 닿는 말 한구절을 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실용문의 성격도 아니라 더욱 어려운가 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께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말은 아마도 고맙다는 말씀일텐데요, 이미 처음 인사드릴 때에도 한 말이고 올 봄에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강조하셨던 말씀을 제가 또 하는 것도 겸연쩍은 일인듯 합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후원회에서 주로 맡아하는 일은 후원금을 받아 후원기관에 전달해 드리는 일인데 우편이나 후원회 데스크에서 후원금을 받다 보면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후원회원들의 사정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아주 적기 때문에 잘 알수는 없지만 회원 중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내고 가시면서 오히려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가실때 내가 무슨 일을 해 드렸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후원자께서는 적지 않은 후원금을 내고 가시면서도 이름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금 공제도,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결연 후원금을 늦게 보내게 되었다고 결연한 아동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결연 아동 걱정은 한번도 안 해본 제가 부끄러워 집니다. 결연 아동의 소식을 물으시며 항상 기도할 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 주위 소중한 사람들 마저도 기도 안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워 집니다.

후원금을 꼬박꼬박 내 주시며 이것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어쩌다 이런 일을 맡아 이 고생인가하고 짜증내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저절로 부끄러워 집니다. 제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시는 후원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해인·수녀

기도로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신록의 숲이되어 오시는 주님
제가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또 한 번의 새 날을 맞아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할까요?

제 작은 머리속에 들어 찬
수천 갈래의 생각들도
저의 작은 가슴 속에
풀잎처럼 돋아나는 느낌들도

오늘은 더 새롭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오늘은 더욱
가깝게 살아옵니다.

지금껏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더러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자투리까지도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사랑의 거울” 앞에 저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느라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오늘을 묶어 두지 않게 하소서

몹시 바쁜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고독의 층계를 높이 올라
해면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흰옷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직히 외우는 저의 기도가
하얀 치자꽃 향기로
오늘의 잠을 덮게 하소서

편집인 데스크

"나누세요,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구촌 아름다운 나눔, 행복세상 만들기

정영희 기자
〈원주 카리타스 편집인
워싱턴 한국일보〉

얼마 전 아는 친구가 얘기를 해 줘 유튜브(youtube.com) 동영상을 통해 한편의 단편영화를 보게 됐다.

'한 끼의 치킨 식사(Chicken a la Carte)'

2006년 제 56회 베를린 국제 단편영화제 입상작이기도 한 영화는 페르디난도 디마드라(Ferdnand Dimadura)가 제작 감독한 6분 10초의 짧은 독립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세계화가 야기시킨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과 인간의 고결함, 신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의 삶에 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이 먹다 버린 치킨 한 조각을 앞에 두고서도 성호를 긋고 감사함으로 식탁을 채우는 모습에서는 숙연함조차 느끼게 한다.

영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너무 잘 먹어 생긴 비만 등 성인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컬 하다.

앞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었던 친구는 "이 지구상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며 "앞으로 밥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더 나아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는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간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곳 가까운 워싱턴 DC에만 나가 봐도 뒷 골목 골목마다 홈리스 노숙자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제 3세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매일 2만 5,000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60억 인구 중 10억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미 국무부 역시 최근 세계 기아 및 식량안보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겪었던 식량가격 위기를 앞으로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아이티, 세네갈 등에서는 쌀과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워싱턴 지역 비영리 자선 구제 단체들도 점점 후원금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들과 가난한 이들을 옥죄고 있는 불황의 장기화 여파로 세상살이가 더욱 각박해지며 남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불경기가 장기화 되며 모두 힘든 상황에서 후원금은 줄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타인종 빈민을 주대상으로 구제사업을 펼치는 기관에 먹을 것과 생필품 등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근근히 살다 집세를 못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지난 여름에만 워싱턴 메트로폴리탄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대여섯명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오르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장 발장도 가난과 배고픔을 못이겨 빵 한조각을 훔치다 19년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소설은 장 발장이 미리엘 신부를 만나 새 사람이 되어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불평등, 제도의 모순, 관용이 없는 사회체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또는 '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부터 가난이 불편함을 넘어 극복할 수 없는 '불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자 한 것 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의 해결책은 '끝없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 아닐까.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거창한 사랑'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말하고 싶다.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박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원주 카리타스 등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에서 소리없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살만 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지러워져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전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가까운 이웃 또는 멀리 고국이나 제 3세계 사회에서 소외되고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가 삶에 바빠 직접 병든 이, 못 배운이,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찾아 보살피고 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참여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이 가진 탤렌트를 이용해 한 달에 한번 장애기관이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쿠키를 전해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일, 따뜻한 식사를 한 끼 마련해 주고 오는 것도 좋은 선행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바쁘면 한달 5~10달러씩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떼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성껏 모여진 후원금은 고국의 불우아동이나 독거노인 또는 여러 빈곤국가의 아동이나 난민, 늙고 병든 환자를 위한 학업 혹은 기술교육, 의식주 지원 등에 씌여진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봉사활동이나 기부 행위 등은 뇌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그 자체로도 기쁨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지난 여름 노르웨이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강조한 말이 생각난다.

"이웃들에게 나눠줄수록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돌아옵니다."

모두 살기 바쁘고 어려워도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월의 길목에서 자신과 주변을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워싱턴의 공익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큐 제작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박차

신선애 비비안나
〈카리타스 편집인〉

WBS 유관일 대표 인터뷰

카리타스 편집인은 평화방송이 제작한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특별기획 드라마 강완숙’에 이어 평화방송의 컨텐츠를 기본으로 한 정규프로그램을 방영키로 한 WBS워싱톤 TV방송의 유관일(사진) 대표를 찾았다. 〈편집인〉

“WBS는 공익방송, 틈새방송입니다” 유관일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WBS워싱턴 TV 방송은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수, 목,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그리고 일요일 아침 7시부터 9시 주 8시간 COX 케이블 채널30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주로 평일 방송 때는 공익방송에 걸맞게 오락성 이나 쾌락성 보다는 유익함을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고 선교,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정치 분야 등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일요일 방송은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신자들을 위한 설교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WBS 워싱턴 TV방송이 고정 시간대와 채널을 편성, 워싱턴의 공익방송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1994년 워싱턴에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5년이란 방송역사를 갖는 동안 많은 이들이 묵묵히 보여 준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유대표는 말한다. 그 중에서도 지난 1996년 채널 90에서 채널 30으로 변경된 이후 채널 30이라는 고정채널을 갖게 된 것과 지난 2007년 기존 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방송시간이 늘어난 것 등을 유대표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다. 바로 이러한 좋은 성과들이WBS워싱턴 TV방송의 디딤돌이 되었고, 공익방송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담당했다고 유대표는 덧붙여 설명한다.

또한 현재 새로이 토요일 방송 검토로 시험 방송 중에 있다는 유대표는 무엇보다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WBS워싱턴 TV방송이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방송해 왔던 기존 ‘WBS초대석’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이제는 버젓이 WBS의 간판급 프로그램으로 짭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당당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WBS초대석’은 화제의 인물, 미담의 주인공 등을 소개하여 진행하는 대담 프로그램으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클로즈업해 세상사는 이야기나 동포들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소개하여 워싱턴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외국 시청자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유대표는 자랑한다.

지금까지 ‘WBS초대석’ 출연자 수 만해도 김수환 추기경, 배은하 신부 (횡성종합사회복지 관장), 최병구, 권태면총영사, 박근혜 의원(전 한나라당대표), 이원상 목사(씨드 선교회 대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윤창길씨(M.D거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씨, 대북문화활동가 이준무 지휘자, 워싱턴 문인회 이영묵 회장,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의원, 크리스토퍼 강 백악관 입법보좌관, 한국 최초맹인박사 강영우 전 차관보, 최영권 성공회 신부,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장, 민주평통 이동희 회장, 설치미술가 진신(Jean Shin), 한미장학회 홍희경 회장 등 200여명이 넘었다. 이 밖에도 현재 전문의가 전하는 ‘건강상식’이나 네 명의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생명의 말씀’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이제는 WBS워싱턴 TV방송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유대표는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해 진두지휘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짧지만 방송인의 사명감 하나로 팔을 걷어 부친 지 오래다. 이에 유대표는 지난 2007년 종군위안부 (comfort women)를 시작으로 나름대로 1년에 최소한 1개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 동포사회의 초점이 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인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제작한 ‘국적없는 로비스트’를 선보였고, 현재는 재미 탈북자 현황을 토대로 한 ‘탈북자 그들은 누구인가?’를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2007년에 선보여 작품성에서 인정을 받은 ‘종군위안부’는 미의회 본회의 결의안 통과 까지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54분 길이의 역작으로, 특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 문제 중심으로 조명, 과거에 비해 문제 접근이 쉬웠다는 것이 유대표의 말이다. “종전에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로 조명하려는 미국측에서 일본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유대표는 그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WBS워싱턴TV방송이 제작한 ‘종군위안부’ 다큐는 신선한 충격으로 종군위안부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지난 서울프라이즈방송대상 수여식에서 비록 대상의 영예는 놓쳤지만 작품성에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국적없는 로비스트’ 도 동포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이중국적 문제를 다뤄 이중국적 허용시 국익과 동포들의 이점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뤄 교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대표는 자체제작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 프로그램도 엄선하여 방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방송 통신 위원회가 해외 공익방송 사업 확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4만불 정도 되는 컨텐츠 등을 공급받아 방영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소재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대표는 한국의 평화방송(PBC)이 제작한 김수환 추기경의 대하 다큐 ‘추기경 김수환이야기’를 9개월여 동안 방영하여 종교를 떠나 모든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이의 여세를 몰아 후속으로 PBC가 자체 제작한 순교자 시리즈 ‘PBC 특별기획 드라마 강완숙’ 3부작도 지난 9월에 선보여 시청자로부터 좋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유대표는 그 동안 조심스럽게 검토해왔던 평화방송 컨텐츠를 기본으로 한 정규 프로그램을 드디어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11월2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채널 30에서 새롭게 평화방송 기획 프로그램, 시사교양, 성서 40주간 강좌 등으로 시청자를 만나게 된다.

방송 시간대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이다. 항상 최선을 다해 공익방송으로서의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유대표는 이를 위해 더 많은 현지 제작 방송의 확대 및 전체 방영시간 연장 등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방송공사 등과 연계를 맺고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전문기술 연수 등 인재양성에도 아낌 없는 지원을 하고 있기에 WBS워싱턴 TV방송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한 닢 한 닢 모아 사랑을 전하는 곳들

차명자 모니카 〈카리타스 재정/운영이사〉

카리타스 회지에 내보낼 모금통 설치 업소들의 사진을 준비할 때 마다, 꼭 다음에는 미리미리 계획하여 먼 곳에서 참여하시는 업소 사진들도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성의 없게 일을 처리하고 말았다.

혹시나 방문한 업소에 모금통이 안 놓여졌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가 고맙게도 계산기 옆에 놓여져 있는 모금통을 확인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아무 보답도 못 해 드리는데 꾸준이 정성껏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회지를 통하여 드리고 싶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리고 다녀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업소 식구들을 만나면, 같은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식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 진다. 또 이런 바램을 갖기도 한다. 이 정성어린 모금이 어떤 학생의 학비에 도움이 되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 그 집 식구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다음 회지에는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에 있는 업소들을 방문, 소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방문한 업소들은 다음과 같다.

▶**Green Cleaners:** 7717 Sudley Rd., Manasssas ▶**Maynine Inc.:** 2231 Crystal Dr., Arlington ▶**Great Falls Cleaners:** 9900 Georgetown Pike, Great Falls ▶**Great Falls Center Cleaners:** 9847 Georgetown Pike, Great Falls ▶**John's Cafe:** 9300 Lee Highway, Fairfax ▶**City Cleaners:** 10455 North St., Fairfax ▶**낙원떡집:** 7317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신선애 〈카리타스 편집인〉

성당다니는 친구의 추천으로 원주카리타스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그린 클리너즈(Green Cleaner's) 이수호 대표. 아직까지는 원주카리타스의 1대1로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이 대표는 매장을 들어서는 손님들의 눈길이 사랑의 모금통에 머무를 때마다 나누는 기쁨이 주는 행복에 웃음이 절로 난다.

현재 매나세스에 위치한 세탁 공장, 그린클리너즈(Green Cleaners)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클리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메릴랜드 로럴에 위치한 정식 세탁학교를 1년간 다니며 착착히 세탁 에 관련된 기술 등을 연마 하여 세탁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춰왔다.

그 덕에 이 대표는 세탁 업계에서는 신속, 정확한 유능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린클리너즈 손님들로부터도 '원더풀'이 란 인사말을 자주 들을 만큼 고객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특히 얼룩제거와 섬유, 직물 구분하는데는 이 대표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그린클리너즈는 세탁 업계에서 인정해주는 D.L.I.(Drycleaning Laundry Institute·전 IFI) 맴버로 세탁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소비자의 크레임 등에 관한 대처 요령 및 기술 정보를 제공 받고 있고, 특히 문제 발생시에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업체에게 썸머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매거진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신기술 정보 등도 제공 받고 있다.

그린클리너즈는 현재 Dry클링닝 뿐 아니라 Wet 클리닝, 그리고 수선도 하고 있다. 매장 오픈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 부터 5시까지이다.

▶주소: 7717 Sudley Rd, Manassas, VA 20109 ▶전화번호: 703-392-6618.

불우어린이집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라인댄스 DVD 판매합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이 필리핀 빈민촌의 어린이집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라인댄스 DVD'를 제작, 판매한다.

지난 연말부터 라인댄스 DVD 발간을 준비해 온 카리타스는 지난 6월 DVD를 발간했다. 이번 DVD는 지난해 발간한 라인댄스 초급 1에 이어 초급2로 제작됐으며 누구나 혼자서도 따라하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DVD 제작에는 라인댄스 지도강사인 홍 세실리아씨(성정 바오로 한인성당 성가대 지휘자)를 비롯 김 데레사, 이숙자씨 등 9명의 수강생이 참가했다.

라인댄스는 파트너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으며 운동효과도 크다는 것이 배운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카리타스 라인댄스 동영상은 인터넷 유튜브 (www.youtube.com)의 검색란에 '카리타스'를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카리타스는 6월 17일 애난데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VD 발간과 빠야따스 어린이집 기금 모금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2007년 10월까지 성 정 바오로 한인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다 이임,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용성 신부(평창본당 주임신부)도 참석했다.

카리타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빠야따스 어린이 집은 쓰레기 하차장 부근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교육기관이다.

현지를 답사했던 곽호인 카리타스재단 이사장은 "빠야따스는 파리떼에 뒤덮혔다고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현지의 비참한 실정을 소개하며 "필리핀 빠야따스 빈민촌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땀 흘려준 라인댄스반 지도강사와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기금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부터 빠야따스 어린이집 기금 모금을 전개해 온 카리타스의 유홍열 회장은 "현재 1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며 "DVD 등을 판매해 어린이 집 건립기금 2만 달러가 모이는 대로 바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리타스는 DVD를 원주 교구에도 100개를 보내 홍보, 판매하고 있다. 한국내 판매 수익금 전액은 강원도 지역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돕기에 사용된다.

DVD는 25달러(우편 주문시 우송료 3달러 별도, 5개 이상 구입시 우송료 면제)이며 구입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수표를 보내 주면 된다.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의 지급인은 'Caritas Wonju'로, 메모란에는 '라인댄스DVD'로 명시 요망)

▶문의: (571)432-9868

정영희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

결식아동돕기 라인댄스 강습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은 한국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라인댄스 강습을 8주 단위로 두 차례에 (7월 11일- 8월 29일, 9월12일-10월31일) 걸쳐 실시했다.

성 정바오로 한인 성당 친교실에서 실시된 강습은 강원도 지역의 독거노인과 조손(祖孫) 가정의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성당 성가대 지휘자인 홍 세실리아 씨가 지도하였다. 등록비 전액과 후원금은 독거노인 및 조손 빈곤가정 어린이를 돕기 위한 난방비와 급식비 지원 기금으로 전달된다.

카리타스 이사장인 곽호인 신부는 "빈곤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어려운 가정에 훈훈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리타스는 지난해에도 라인댄스 초급 1반 DVD판매 금액에 비상구호금을 보탠 6,000여 달러를 강원도 지역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으로 보냈다.

후원금을 보내실 분은 수취인을 'Caritas Wonju'로 써서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로 보내면 된다.

정영희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

라인댄스 배우고 어린이 집도 짓고

'라인댄스의 날' 성황리에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 주최 '라인댄스의 날' 행사가 6월 28일 성 정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열렸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새로이 출시된 라인댄스 DCD 홍보 겸 기금 모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노시창 버나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곽호인 신부는 "그동안 자원봉사로 라인댄스 강습을 맡아주신 홍세실리아 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라인댄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필리핀 빠야따스 어린이 집을 짓는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또 "참가자들은 건강한 시간을 보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고, 어린이들은 여러 사람의 사랑으로 지은 집을 갖게 되어 행복하며 바로 이러한 것이 나누는 삶이 주는 행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특별히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Papa Loves Mambo'와 'Tango with Sheriff' 등 2곡에 맞추어 초급2 라인댄스 시범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2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보자용 허슬과 마카레나, 차차차, 왈츠 등을 조용필의 '허공'과 '널 그리며', '외로워 마세요' '누구라는 그 사람' '비에 젖은 터미널' '요즘 남자 요즘 여자' 등 정겨운 우리가요에 맞춰 개발한 새로운 스타일의 라인댄스 강습지도가 이어져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김효중 토마스 등 성가대 회원들이 라이브 음악을 연주,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한편 이날 원주 카리타스는 파트너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라인댄스 DVD 초급 2' 판매와 7월11일(토) 새로 시작하는 8주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성정바오로성당)의 라인댄스 초급반 개강 신청도 받았다. 홍알벗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장애인들에게 녹음 도서 제공

성동 녹음봉사센터 개소

김마리 클라우디아 수녀
〈서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복음자리 성동, 행복 충전소의 비전을 지향하는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홍보자료실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및 자료를 대여하는 일종의 작은 도서관 기능을 맡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도서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녹음도서 사업활동을 성동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한 지난 1983년 이래 계속해 왔다. 녹음도서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이나 노인과 병상의 환자, 중증의 지체 장애인 등 일반도서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도서 및 전문도서를 음성으로 녹음하여 CD나 mp3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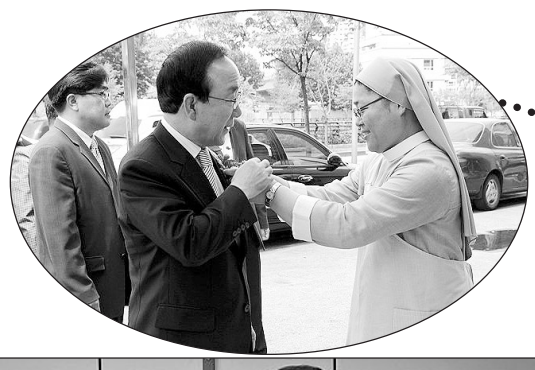
2009년 6월을 맞아 홍보자료실에서는 관내의 기존 녹음실을 장애인 생활회관의 녹음 스튜디오로 확장 이전하면서 '성동녹음봉사센터'로 전환했다. 이 센터는 최신 녹음시설과 냉·난방시설을 갖춘 약 65평방 미터 규모로 5개의 녹음실과 회의실등을 갖추고 23명의 녹음봉사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개소식에는 녹음봉사회인 '겨자씨' 회원들과 서울 대교구를 비롯한 수원 교구, 인천교구의 홍보 및 전산관련 신부님, 담당 실무자, 가톨릭 시각장애인협회 및 시각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모든 지식과 정보는 각종 도서와 신문, 인터넷을 통해 얻는데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면서 "앞으로 녹음 봉사회와 같은 전문 인적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성동구의 행정 곳곳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 녹음봉사회는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홈 페이지에 교구 주보 및 매일 미사를 녹음하여 올리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이번 녹음봉사센터로의 확장을 새로운 활동과 도약의 시간으로 삼아 많은 계획들을 추진, 검토중이다.

녹음봉사센터는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적인 정보와 문헌을 녹음하여 녹음도서를 요청하는 시각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장기 요양환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성동지역을 포함한 인근 여러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자료, 학습 교재, 이용 설명서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음봉사센터는 성동 장애인복지관 내 홍보자료실에 본부를 두고, 시각장애인 전문도서관 및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활발한 미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 도서관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성동 녹음봉사센터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녹음도서를 소개합니다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카리타스 편집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해부터 서울에 있는 성동 녹음봉사센터(구 성동장애인 종합 복지관)로 부터 녹음도서를 받아 노안이나 안구 건조 등 시각장애가 있는 미국 거주 동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녹음도서는 CD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성동 녹음 봉사센터에 보내져 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에 쓰인다. 지난 회지에 소개된 40권의 도서에 최근 15권의 녹음도서 (아래 목록 참조)를 추가하여 현재 60권 정도의 녹음도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신청문의는 전화 571-432-9869로 하면 된다. 최근 추가된 도서 중 권하고 싶은 몇 권의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내용은 인터넷의 yes24와 알라딘 서점 사이트에서 발췌).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

(마더 데레사 지음, 김순현 옮김, 오늘의 책 출판)

요즘처럼 각박하고 매정한 현실에 따뜻한 글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준다. 쪼글쪼글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은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매력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우리들의 삶에 던져주는 의미는 대단하다. 개인의 평화가 사회적인 모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이때 몸소 체험으로 삶을 보여준 마더 데레사의 경우는 삶과 묵상이 분리되지 않은 성녀로 인식된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삶과 실천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마더 데레사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살라는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마더 데레사가 생전에 행한 강연과 연설, 논평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강연의 내용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에이즈와 낙태문제, 정신적·육체적으로 소외 받은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마더 데레사는 종파를 떠나서 나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내용으로 일관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종교가 우리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그녀의 종교적 관용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녀는 주로 예화를 들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외에도 특별히 수록된 인터뷰에는 캘커타 빈민가에서 시작된 '사랑의 선교회'를 비롯하여, '평화의 마을', '임종자의 집', '사랑의 선물' 등의 구호단체들을 설립한 취지, 그녀가 평생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마더 데레사는1910년 8월 26일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예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28년 아일랜드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된 후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으며, 1929년부터 20여 년 동안 인도 콜카타의 성 마리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1년 자신의 수도명으로 데레사라는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작은 꽃으로 알려진 리지외의 성 데레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대가없이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1950년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임종자를 위한 집', '나환자를 위한 집', '어린이들을 위한 집', '에이즈 환자를 위한 집' 등을 마련하여 버림받고 사랑 받지 못한 이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베풀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 9월 5일 심장질환으로 8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뒤늦게 만나 사랑하다

(공선옥, 박완서, 박재동 등 8인 지음, 생활성서 출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에 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절대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 사,오십대, 삶의 연륜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탄탄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인생을 알 만큼 아는 나이에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 입교를 결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뒤늦은 선택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문단에서 혹은 화단에서 내로라 하는 중견 작가 8인 (공선옥, 박완서, 박재동, 신달자, 오정희, 전옥주, 최인호, 한수산)이 들려주는 가톨릭 입문기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자신을 떠받치고 있다고 느꼈던 어떤 기운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달으며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공무니 빼기를 26년 만에 드디어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되며, 예비 신자 교리 3수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후에야 치른 세례식에 이르기까지…. 입교의 이유와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늦깎이 신자로 새로 나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눈시울을 젖게 하고 때론 따뜻한 웃음을 자아내며 읽은 이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신다. 나아가 책을 덮을 즈음이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그분의 사랑을 새로이 느끼게 한다.

할아버지의 축복

(레이첼 나오미 레멘 지음, 류혜욱 옮김, 문예출판사 발행)

이 책의 저자 레이첼 나오미 레멘은 열다섯 살에 크론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는다. 크론병은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병으로 심해지면 배에 인공 항문을 삽입해야 하는 불치병이다. 인생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온 저자는 그럼에도 삶은 아름다고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육체의 병이 있지만 인생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저자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겹게 여겨질 때가 많아도 내게 주어진 인생이 축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레이첼 레멘은 종교를 배척하는 사회주의자 부모님을 두었으나 어릴 적 유대교 랍비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신성함에 눈뜬다. 레멘은, 오랜 세월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치료보다는 치유를 중시하며, 육체의 병을 앓는 환자들과 마음을 교류한다.

레이첼 박사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되며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축복의 삶은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난과 고통이 축복의 삶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로 완성이며 행복, 그리고 타인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 그것은 바로 축복에서 나온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무르익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복'과 연관 있는 잔잔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이 책을 추운 겨울 따뜻한 책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싶은 사람들,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는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그 필요성을 교육하는 일에 투신하는 선두 주자로, 20년 동안 암 등의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빌 모이어가 진행하는 PBS 방송의 특집 '치유와 정신'에서 소개된 바 있는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창설자이기도 하며 의과 분야 책임자다.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 교수이다.

최근 추가된 녹음도서 목록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녹음자	비고/주제
1	뒤늦게 만나 사랑하다	공선옥,박완서,박재동,신달자,오정희,전옥주,최인호,한수산	생활성서	공동녹음	CD 6장/수필
2	화 제대로 내기	버트 게찌 (Burt Ghezzi)	바오로딸	채영교	CD 3장/신앙
3	내려놓음	이용규	규장문화사	윤미경, 홍혜경	CD 6장/신앙
4	사막에서 길을 묻다	허성준	생활성서사	김애진, 나미숙	CD 4장/신앙
5	성서에서 만난 변화의 표징들	안셀름 그륀	분도	이영숙	CD 4장/신앙
6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	마더 데레사	오늘의 책	신혜경	CD 4장/신앙
7	영원한 기쁨	성 알폰소 마라아 데 리구오리	바오로딸	최정희	CD 3장/신앙
8	이 사람을 보라	라디슬라우스 보로스	바오로딸	최애영	CD 1장/신앙
9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	바오로딸	공동녹음	CD 8장/신앙
10	사랑이 두려움을 만날때	데이비드 리코	가톨릭 출판사	이영숙, 정인	CD 8장/신앙
11	토마스 키팅 신부와 함께 걷는 께달음의 길 1	토머스 키팅	바오로딸	신혜경	CD 6장/신앙
12	토마스 키팅 신부와 함께 걷는 께달음의 길 2	토머스 키팅	바오로딸	신혜경	CD 5장/신앙
13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창작과 비평사)	임순남	CD 8장/소설
14	할아버지의 축복	레이첼 나오미 레멘	문예출판사	송애경	CD 5장/수필
15	지금 사랑하지 않는자, 모두 유죄	노희경	헤르메스 미디어	김정하	CD 3장/수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

이글은 지난 7월 7일 발표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의 주요 내용과 정신에 대한 한홍순(토마스·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의 해설을 연재한 평화신문의 특별기고에서 요약, 발췌 기재한 내용이다. 〈편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사회적 가르침이자 21세기 들어 처음 발표된 사회회칙인 「진리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은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21세기 인류에게 복음을 토대로 인간 발전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문헌으로 큰 관심을 모아왔다.

총 6장 79항으로 이뤄진 회칙은 바오로 6세가 제시한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의 전통을 토대로, 급속히 세계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 발전의 소명에 대해 성찰한다. 특히 「진리 안의 사랑」은 사회회칙으로는 처음으로 생명권과 종교자유권을 인간적 발전과 본격적으로 연결시켜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밝히고 있다.

◆ 의의와 특징

베네딕토 16세의 세 번째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바오로 6세가 분명하게 제시한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의 전통을 토대로, 사랑과 진리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으며 발전은 사랑의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 경제가 기초로 삼아야 할 도덕적 원리, 곧 정의와 공동선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문헌은 세계 경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도덕의 위기임을 지적하면서 진리 안의 사랑에 바탕을 둔 올바른 발전관을 제시한다.

교황은 지난 4년 동안 하느님을 이념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에게 무심한 나머지 인간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되는 무관심의 무신론은 오늘날 발전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새 회칙은 "하느님을 배제한 휴머니즘은 비인간적 휴머니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사회 회칙으로는 처음으로 생명권과 종교자유권을 인간적 발전과 본격적으로 연결시킨다. 새 회칙은 이러한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을 때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이 회칙에서는 이른바 '인간학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다. 그리하여 출산과 성생활, 낙태와 안락사, 인간 유전자 조작과 우생학적 선택을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기고 순전히 물리적 생산의 논리로만 다뤄질 경우 사회적 양식을 손상시키고 법의식을 파괴하며 가정을 해치고 약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 회칙은 그 밖에도 두 가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하나는 요한 바오로 2세도 제기한 바 있는 환경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 문제이다. 환경 생태론은 인간 존엄의 우월성을 무시하고, 자연을 단지 물질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생명권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는 문화를 조성하게하여 물질주의적이고 기계론적 인간 생명관을 촉진하게 되며, 허무주의와 상대주의 문화에 빠지게 한다.

새 회칙은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원, 사고와 의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리요 사랑이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회칙이 마지막 항을 기도와 회개의 필요성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 사랑과 정의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회개해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제1장 「민족들의 발전」의 메시지

「진리 안의 사랑」은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1967년)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바오로 6세는 이 문헌을 통하여 전인적(全人的) 발전관을 확립했다. 즉, 인간의 진정한 발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롯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인간의 소명이며 사랑이 그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적 발전은 절대자를 향한 초월적 차원을 지닌다. 발전은 개인과 민족들의 책임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며, 여기서 인간은 발전의 주체가 된다. 반면에 초월적 차원을 부정하면 인간은 한낱 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비인간화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11항).

발전은 진리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전을 통해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초월적 차원에서 더 나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개발의 원인은 주로 물질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연대성을 무시하는 의지 때문이며, 또한 의지를 올바로 이끄는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의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간의 형제애 부족이다"(19항).

제2장 우리 시대의 인간적 발전

세계 경제는 부패와 불법, 경제와 기술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한편 투기적 금융거래, 대규모 이주 노동, 무분별한 자원 개발 등과 같이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파행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국가 간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의 권리, 인간의 기본권과 전통적 형태의 사회보장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세계화는 노동자의 국제 이동을 증대시키며,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안정적 생활이 어려워지며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사회회칙으로는 처음으로 생명권과 종교 자유권을 인간적 발전과 본격적으로 연결시킨다. "생명 존중은 참된 발전의 핵심이다. 한 사회가 생명을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사회는 인간의 참된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필요한 동기와 활력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고 만다"(28항).

또한 종교적 광신주의는 테러리즘을 부추겨 평화를 위협하고 종교 자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그리고 종교 무관심이나 실천적 무신론은 인간으로부터 정신적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오늘날의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의 논리'도 요구하는 것이다.

제3장 형제애, 경제 발전과 시민 단체

이 장은 새 회칙의 중심 사상을 집약해 설명한다. 진리와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인간은 이 선물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 선물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을

나타내고 실현한다. 그러나 소비주의와 공리주의 인생관에 물든 현대인은 대가없이 주어진 이 선물의 무상성(無償性)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자신과 자기 삶과 사회의 유일한 주재자라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다.

"… 경제, 사회, 정치의 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려면 형제애의 표현인 무상성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34항)

교황은 여기서 회칙 「백주년」을 인용하면서 시장과 국가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무상성과 형제애의 경제에 가장 적합하다. 상부상조적이며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 조직이 민간 기업, 공공 기업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시장에서 만남으로써 일종의 혼합형 기업 행태가 출현하고, 경제의 교화(敎化)에 대한 의식 계발이 가능하게 된다.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거래를 개선하고 공공 복지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무상성과 친교에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확립해야 한다.

국제 경제의 현재 상황은 기업관의 철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는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들 간의 더욱 강력한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제3장은 마지막으로 세계화 현상을 평가한다. 세계화는 사회 경제적 과정만이 아니며, 다양한 문화 풍조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세계 통합 과정의 인격존중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면서 초월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풍조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42항).

제4장 민족들의 발전, 권리와 의무, 환경

새 회칙은 전 인류의 연대성은 하나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권리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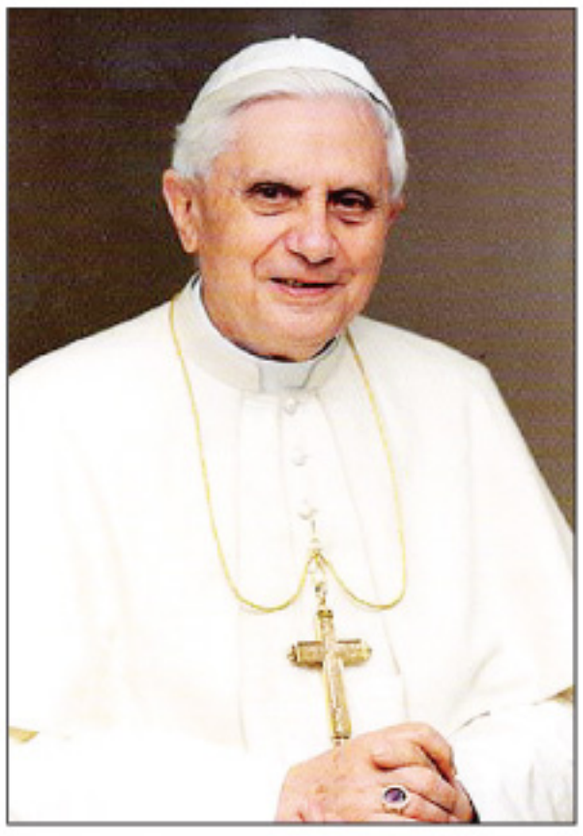
오늘날 심각한 모순은 부유한 국가들은 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의 식량, 식수, 기초교육, 기초보건과 같은 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권리의 객관성과 불가침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은 인구 성장 문제를 발전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지어 다룬다. 책임있는 출산은 완전한 인간 발전에 이바지하며 도덕적으로 책임있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풍요로운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구축하게 한다.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황은 근년에 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 사이의 중간 영역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이것은 이른바 '시민 경제' 또는 '친교의 경제'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적절한 법적·재정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의 개발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교황은 여기서 국제협력기구들은 자체의 관료적·행정적 구조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4장은 또한 환경 문제를 논한다. "…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가난한 이들, 미래 세대들, 전 인류에 대한 의무가 있다"(48항).



환경 보전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국제 공동체는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가난한 나라들도 참여한 가운데 모색해 미래를 함께 계획해야 할 긴박한 의무가 있다"(49항).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교황은 여기서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재분배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황은 자연 생태계 문제를 인간 생태계 문제와 직결시킨다. 자연 파괴는 인간의 공존을 이룩하는 문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인간 생태계가 존중되면 자연 생태계도 혜택을 본다.

제5장 인류 가족의 협력

인류 가족의 협력은 제5장의 제목이자 핵심 주제이다. 교황은 여기서 어떻게 "민족들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데 달려 있는지"(53항)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 이 세상이 하느님 계획에 부합하도록 할, 곧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협력의 지침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이며 이러한 원리는 국제개발 원조에도 적용돼야 한다. 경제 원조는 수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주체들과 지역교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분배돼야 한다. 교황은 여기서 선진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에서 가능한 한 큰 몫을 개발 원조에 할당해 국제공동체가 정한 의무(GDP의 0.7%)를 지킬 것을 권고한다.

새 회칙은 이어서 이주 문제를 다룬다. "이주민은 누구나 하나의 인간이며, 그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신성한 기본권들은 모든 이에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존중돼야 한다"(62항). 이주민 문제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 국제 협력 정책을 통해 다뤄야 한다.

발전 문제를 생각할 때 실업과 빈곤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우, 빈곤은 인간 노동의 존엄성이 침해당한 결과이다"(63항). 교황은 여기서 요한 바오로 2세를 인용하면서 "품위있는 노동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지지를 보낸다.

새 회칙은 이어서 전체 금융 체제가 참다운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황은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융 부문의 규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실험, 특히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경험을 적극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국가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UN과 국제 경제 및 금융 기구의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67항)는 점을 강조한다.

제6장 민족들의 발전과 기술

이 장은 새 회칙의 마지막 장으로 기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기술 문제를 인간학적 관점에서 규명한 이후 이 문제를 이렇듯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이 회칙이 처음이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일 인간이 기술이 이룩하는 '기적적 성공'을 이용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족들의 발전은 퇴보하게 된다. 경제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의 '기적적 성공'에 의지해 부자연스럽고 소비주의적 성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68항).

"오늘날 기술 절대주의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문화 투쟁의 가장 중요한 싸움터는 생명윤리 분야로, 여기서 완전한 인간 발전의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이성과 신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오로지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단지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만 매료되면, 신앙 없는 이성은 자신이 전능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성 없는 신앙은 사람들의 구체적 생활과 단절될 위험이 있다"(74항).

교황은 여기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일체이므로 발전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포함해야 한다"(76항)는 점을 강조한다.

"진정한 발전은 인간사에 대한 물질주의적 비전을 넘어 설 수 있는, 발전 안에서 기술이 줄 수 없는 '저 너머 그 무엇을' 직감할 수 있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을 필요로 한다.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진리 안의 사랑의 추진력을 근거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완전한 인간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77항).

◆ 결론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진리의 지도를 따르며 이 둘을 모두 항구한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이다"(78항).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이웃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각자 삶을 연대 정신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할 임무로 이해하게 된다. 반면에 무신론은 창조주를 망각하고 인간적 가치들조차 망각함으로써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비록 그것이 당장 이뤄질 수 없더라도, 비록 우리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우리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하느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해나갈 용기를 준다.

불우아동 위한 온정의 굿샷!

원주카리타스 골프대회 - 1만1천달러 모금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홍열)은 제3회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를 6월6일 버지니아 헤이마켓의 불런 골프클럽에서 개최했다.

한국과 필리핀 등 세계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한 골프대회에는 102명의 한인골퍼들이 참가, 성황을 이뤘으며 1만1,159달러가 모금됐다.

대회 수익금 전액은 한국, 네팔, 과푸아 뉴기니, 필리핀의 불우아동기관에 전달된다.

김 데레사 홍보이사는 "그랜드마트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55군데의 업소, 개인 및 단체에서 스폰서를 해 주시고 많은 상품 및 물품을 후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원주 카리타스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기에 열심히 뛰며 더욱 더 여러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불경기로 한인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마트 (대표 강민식)가 전폭 후원, 훈훈한 화제를 낳았다. 그랜드마트 측은 그린피와 카트피, 홍보비 등 행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모두 지원했다.

한편 샷건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차영진씨가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또 남성 A조에서는 1등 이경주, 2등 대니엘 서, 3등 윤장용, 남성 B조에서는 1등 안세웅, 2등 페리 윤, 3등 에덤 박, 시니어조에서는 1등 임영하, 2등 박창호, 3등 Ken McCreless, 여성조에서는 1등 써니 김, 2등 서순이, 3등 임난숙씨가 차지했다. 근접상은 오수만, 장타상은 김정옥씨에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대회장인 김광윤 프로와 함께 워싱턴한인골프협회 (회장 이동철)에서 진행을 맡아 봉사했으며 박루시아씨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이종국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에 이어 그랜드마트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별협찬(그린피, 카트피 외에 신문 광고 비용 전액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대회 진행을 맡아주신 김광운 프로님과 워싱턴 골프협회 회원님들, 사회를 맡아주신 서경원 님, 홀 스폰서 해 주신분들, 찬조금을 내 주신분들 그리고 상품 후원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점심, 저녁을 정성껏 맛있게 준비해 주신 박 루시아님과 함께 봉사해주신 분 등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골프대회 상품을 다시 도네이션 해주셔서 즉석 판매, 불우아동기금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스폰서

김만식대표-그랜드마트 (green fee, cart fee 및 신문 전면광고 후원)

·홀 스폰서

고재오/글라시아 님/Garisonville Meineke, 곽호인 신부님, 김만용 님/자구촌 마켓(3홀), 김명철 님/Super G Mart, NC, 김상기 님/Nisimoto Trading Co. Ltd - 아틀란타 조지아, 김성헌 님, 김성호 님/참고식품 (주) - 아틀란타 조지아, 김호연, 제임스 서 님/Capitol Cafe, 김홍석 미카엘 님/시티 종합보험, 김 헬리시아 님, 늘푸른 여성골프회, 박용걸, 완다 님, 서우식 님/한이식품 - Columbia, MD, 오승은 님/오승은 법률사무소 (2홀), 이창수, 소재웅 합동공인회계 사무실, 장 요안나 님, 주 세실리아 님/라인댄스 DVD출판기념, 차명자 님/차명자 치과, 최창식 치과, 하주영 님/하주영치과, 한중희 님/한 회계법인, 홍성철, 세실리아 님, 황원균 님/Young Won Trading

·찬조금

권순 리오바 님/Sunday Cleaners, 권전옥 님, 김남식 님/Kim's Auto Service, 김명철 님/Super G Mart, NC, 김선구 안토니오, 아네스 님, 김정옥, 숙희님, 김호연, 제임스 서 님/ Capitol Cafe, 노 베로니카 님/Veronica Noh Health Center, 박 요안나 님, 박용걸, 완다 님, 베스트 장비 주식회사, 오 루시아 님, 이 데레사 님/Ace Travel, 이숙자 님/Daioa Natural Food, 조성숙 님, 황성복 님/지랜드 유니폼, 홍성철, 세실리아 님, Daniel Suh 님

·상품후원

Euromotorcars Benz-MD/유스티노 한 님(홀인원스폰서 - Benz 2 yrs lease), 고재오/글라시아님, 김만용 님/자구촌 마켓, 롯데프라자 센필리점, 바잉투게더, 서울하우스, 실비아 Patton 님, 이 마리아 님/센터빌 미건의료기, 이동철 님/에난데일 골프, 이영찬 님/Chrio American Inc, 정종철 님/에가토탈, 최중섭 님/Bull Run Golf Club, 케빈 김 님/워싱턴그래픽, 한강 Restaurant, Beltway Trophy, Ottenberg's Bakery

1

2

3

"이제 물 걱정은 없어요"

인도네시아 플레로스 섬

물과 전기는 우리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다. 전기가 없어 닭농장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지 못하고, 마시는 물이 없어 여러모로 고통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플로레스 주민에게,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은 1만 9,400달러의 기금을 모아 그곳 담당 신부님을 통하여 보냈습니다. 후원금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양계장 운영이 수월하게 되었다는 신부님의 소식입니다. 후원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집인〉

Dear Caritas Wonju,

Greetings from Ende-Flores, T he celebration is over now and I am back to daily duty. How are You? I am so sorry for not being able to send you photos as well as a report. Enclosed, please find some photos that show how we were trying to get water in Boanawa Fores.

The first photo: Mr. Rony is detecting to find where the water is. (1) The second photo: workers are drilling / digging. (2) The third photo: pulling out soil/ ground. (3)

Rest of the photos shows the situations of our farm at present now. When I was in Rome, they found water, after that they drilled again the first well about 8 more meters to get everything ready and know the second well will be used if the first one is out of order. Now we have more than enough water for our farm. On behalf of all staffs and workers, I would like to thank you. You have saved our life in the farm.

Thanking you once again and your kindness is very much appreciated.

Kamsa hamnida.

카리타스 복지재단 후원자님들,

안녕하세요? 엔데 프로레스 섬(Ende-Flores)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축제가 끝났고 저도 일상업무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사업에 대하여 결과보고도 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린다는 것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보나와 포레스(Boanawa Fores)에서 식수를 끌어올리는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사진은 로니 씨가 수원을 찾는 모습이고(1), 둘째 사진은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2), 그리고 셋째 사진은 흙을 퍼 내는 작업입니다(3). 나머지 사진들은 지금 현재의 저희 농장 실태를 담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수원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이 나오자 첫번째 우물을 8미터 가량 더 깊이 팠고 첫번째 우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우물도 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농장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에게 농장 직원들과 일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농장을 살려주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친절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로이시우스 우림 라가마킨 신부

"빠야따스 어린이 집 설계됐어요"

카리타스 수녀회 소속 한국 수녀들이 파견되어 헌신하고 있는 필리핀 최대의 빈민지역인 빠야따스에 관한 기사는 본지 18호에 실린 바 있습니다. 쓰레기산 마을인 빠야따스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넝마주이로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팔아 그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수녀님들은 필리핀 봉사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에 사는 25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식사, 이발, 목욕 및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의 작은 소망은 영양실조에 걸린 이 어린이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끼라도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줄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부방, 식당, 그리고 자그마한 놀이터 등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약 2만5천 달러, 수녀님들에게는 엄두도 못낼 금액입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이 소식을 듣고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라인댄스 DVD 판매 및 후원금 모금을 통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성금을 마련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글은 어린이 집 설립 현황에 대하여 그곳 수녀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집인〉

원주 카리타스 후원자 님들,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소식 전합니다.

빠야따스의 어린이집 건축에 관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지난번 한국에 있는 성 가롤로 병원에서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빠야따스 돕기' 바지를 하고, 떡을 만들어 파는 등 성금을 모아 보내주시어 빠야따스에 건물이 함께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여 수녀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공사비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금액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어린이 집만을 옆의 공터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어린이 집을 지으려 했으나 그 공사 비용이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하여 그것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의 아주 일부 만을 지불하고 10월 초에는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굳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고,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은인을 보내시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다니는 센터는 내년 5월 정도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일대 300가구의 빠야따스 주민들에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철수하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어린이집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철수의 위험은 없지만, 8년 동안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땅히 갈 곳도 없이 뿔뿔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린이집의 건축설계도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건물은 2층으로 짓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2009년 9월 23일,

필리핀 빠야따스에서, 김정임 가밀라 수녀드림

빠야따스 어린이 집짓기 도움주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 메모란에 '빠야따스 어린이 집 후원' 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9868

산타가 되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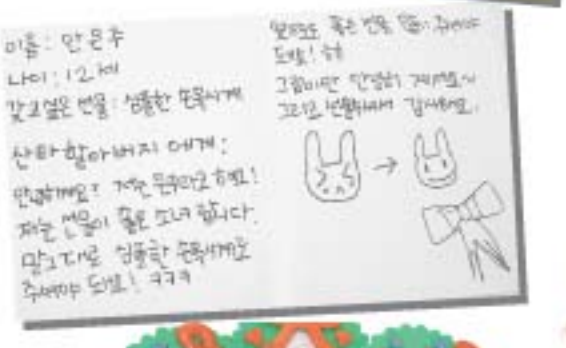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카리타스 편집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지구촌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산타가 되어 주세요' 결연 캠페인을 펼친다.

결연 캠페인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적은 카드를 '기빙 트리 (giving tree)'에 걸면 후원자들이 20불씩 내며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결연이 되면 후원자 이름이 적힌 성탄 화환 카드로 바뀌어 달린다. 이번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은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 네팔의 학교, 파푸아 뉴기니의 카리타스 수녀회, 필리핀의 빠야따스의 카리타스 수녀회 등 평소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네 개 국가에 있는 시설들이다.

한국에서는 횡성 성당, 횡성 노인복지센터,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천사들의 집, 대천 베드로의 집, 평창 성당,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일산동 성당, 영월 다문화센터 등이 참여해 약 250명의 아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선물을 받을 네 나라의 아동들은 약 800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 많은 아동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동들이다.



카리타스 이사장인 곽호인 신부 (성 정바오로 한인성당 주임신부)는 "작년에는 신청 아동 수보다 후원자 수가 더 많은 훈훈한 행사였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행사도 가난한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 품목들은 큰게 아니라 신발, 교복, 학용품, 책가방, 쌀, 밥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들이라 가슴 아프게 한다.

이 캠페인을 위해 성 정바오로 한인성당에는 11월 21일 성당 입구에 기프트 트리를 설치하였다. 후원금은 아동을 추천한 각 복지시설이나 학교로 송금되며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부탁한 선물을 구입해 성탄절에 선물을 전해주게 된다.

산타신청 (수표는 Caritas Wonju 앞으로):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 (571) 432-9868

'푸르고 싱싱한 세상'을 향해

"그랜드 빌리지 개점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선애 비비안나
〈카리타스 편집인〉

강수연 대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옛 말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지난 11월12일 센터빌 웨스트필드에 새로이 개점한 '그랜드 빌리지'이다. '그랜드 빌리지'는 오픈 기념으로 11월 18일 지역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비롯해 한인단체와 공공기관 등 12개 단체 기관에 총 1만3,500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무연고 노인들을 돌보는 성가정 작은 자매 수녀원, 결손가정 등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단체인 원주 카리타스, 한인들의 풍요로운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북버지니아 한인회 산하 기관인 한사랑 종합학교, 사회복지 제도 등 다양한 이민 정보를 제공해 이민생활의 등대 역할을 하는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셜리 디스트릭 경찰서, 헤어팩스 공립 도서관, 센터빌 소방서에 각각 1,500달러씩 전달되었다. 또한 셜리 스테이션 팀, 웨스트필드 크루 부스터 클럽과 사우스웨스턴 유쓰협회에는 500달러씩, 중국학교 2개소에는 각각 750달러씩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또한 그랜드빌리지 개점을 위해 함께 애쓴 그랜드마트 임직원 600여명에게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3만 달러(1인당 50달러)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이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엠에스(MS) 그랜드' 그룹 (대표 강수연)의 강민식 전 대표와 원주 카리타스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그당시 대표였던 강 대표는 본 후원회의 재정이사 제안을 흔쾌히 승낙,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각종 행사에 항상 뒤에서 소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 전 대표는 본 후원회 주최로 열렸던 지난 2004년 '추석 장터 한마당' 행사에 장소 제공 및 경품후원 등 사소한 지원까지도 마다하지 않아 본 후원회는 행사 취지인 독거 어르신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해마다 열리는 '지구촌 불우 아동 돕기 골프대회' 또한 참가비 전액을 복지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강 전 대표의 훈훈한 미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강 전 대표의 철저한 나눔 실천의 원칙으로 소리없는 이웃사랑으로 남길 원했지만 부득이 본 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강 전 대표의 이러한 이웃 사랑 실천은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다. 강 전 대표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약속을 계승해 왔고, 이는 현재 강 전 대표의 뒤를 이어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강수연 대표 역시 이러한 뜻을 계승,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수연 대표는 강 민식 대표의 1남 3녀중 첫째 딸로서 이번 신개념의 프리미엄 마트 '그랜드 빌리지'를 오픈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닌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강수연 대표는 "저희 엠에스(MS) 그랜드는 고객의 행복이 곧 저희의 기쁨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오늘의 그랜드가 있기까지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푸르고 싱싱한 세상'을 표방하고 있는 엠에스(MS) 그랜드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유통의 격을 한차원 높인 고품격 프리미엄 마트 그랜드 빌리지(Grand Village)는 4만3,000스퀘어 피트의 매장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 정육, 생선 코너를 갖추었으며 다양한 그로서리도 구비해 놓고 있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 이력제도 실시하고 있다. 개점 기념으로 대폭 할인 및 벤츠 승용차 등이 내걸린 경품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주소: 5111 Westfield Blvd., Centreville, VA. ▶전화: (703)378-0220

Blessing of the Pets (애완동물에게 축복을!)

이소영 〈카리타스 편집인/전 내셔날 지오그래픽 한국판 편집장〉

얼마 전, 포토맥 강변을 산책하다 "Blessing of the Pets (애완동물에게 축복을)"라고 쓴 이색적인 포스터를 봤다. Blessing of the Pets라니! 미국에서는 야구 시합 중에도 7회(7th inning)가 되면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God Bless America.(주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르고, 정치인들도 걸핏하면 "God bless all of us.(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말할 만큼 문화 전반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애완동물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생소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포스터에 적힌 대로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애완동물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기로 했다.

처음 들른 교회는 크라이스트 교회(Christ Church). 입구에서 만난 캐시(Cathie)라는 14세 소녀는 자신의 애완용 고양이를 나폴레옹(Napoleon)이라고 소개하면서 안전(safety)과 건강(health)을 빌어주러 데려왔다고 했다. 교회 정원에는 애완동물을 데려온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두꺼비 담팽이도 눈에 띄었다.

또 어떤 꼬마가 다가오더니 "Why didn't you bring your animal?(애완동물을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라고 물으면서 "I received blessing for my kitty Albert. My mother said if he dies of old age, she would buy me two kitties.(제 새끼 고양이 앨버트는 축복받았어요. 엄마는 앨버트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사주신대요.)"라고 재잘거렸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Five and three quarters." (5살 9개월)라고 했다. 같은 또래 한국 아이들을 떠올리며 문화적 차이가 느껴졌다.

애완동물에게 베푸는 축복 의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기 위해 조금 늦은 시각에 시작하는 집 근처의 미드 메모리얼 성공회 (Meade Memorial Episcopal Church)로 향했다. 교회 앞에는 "Please join the members and friends of Meade Church for a Pet Blessing. All types of pets are welcome! PRIZES! REFRESHMENTS for PEOPLE & PETS! (애완동물 축복을 위해 미드 교회로 나오세요. 애완동물 모두 환영! 상품 증정! 사람과 애완동물을 위한 다과!)"라고 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 예배는 목사가 "Bless the Lord, all you his creatures.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애완동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에 이어 찬송을 하고 성경을 봉독한 후 축복의식이 거행됐다. 목사는 먼저 아프거나, 죽었거나, 교회에 데려올 수 없는 애완동물의 고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을 베풀었다. 종류도 다양해 귀뚜라미, 개구리, 햄스터, 거북, 토끼, 새 등,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데려온 애완동물은 대부분이 개였는데, 축복 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수잔(Susan)이 스모키(Smokey)라는 개를 데려왔다고 하자. 그러면 목사는 샘에서 나뭇가지에 물을 적신 후 스모키의 머리에 대고 물을 뿌리며, "Smokey,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y you and Susan enjoy life together and find joy with the God who created you. (스모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너와 수잔은 삶을 함께하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기뻐하라.)"라는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개들은 빙빙 도는 녀석, 도망가려 안간힘을 쓰는 녀석, 얌전히 물세례를 받는 녀석, 눕는 녀석, 몸을 비트는 녀석, 별의별 녀석들이 다 있다. 애완동물 주인들은 심각하건만, 나같은 구경꾼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

이 행사는 가톨릭의 프란체스코회(the Franciscan Order) 창시자인 이탈리아 수도사 성 프란치스쿠스((St. Francis of Assisi, 1182~1226)의 축일(feast day)인 10월 4일에 근접한 일요일에 열린다. 알고 보니 그는 '동물과 환경의 수호성인(patron saint of animals and the environment)'이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리사이클링'

차명자 〈카리타스 운영/재정이사〉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동트는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모습으로 나의 마음에 평화로움을 주고 삶에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나도 그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느낄 때 이 아름다움에 해가 되지는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의 이기심과 게으름이 우리에게 한없이 주기만 하는 자연을 얼마나 해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마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일 일 것이다.

생활 쓰레기는 자연을 파괴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유해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쓰레기가 얼마나 이 지구를 좀 먹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고 한정된 지구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분리수거에 힘쓰고 재활용에 좀 더 철저히 임해야 한다. 또 쓸모없는 물건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생각해 보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뉴욕에서는 쓰레기 처리 경비와 분리수거/재활용에 드는 경비를 비교하던 중, 재활용에 드는 경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유리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제외했으나 늘어나는 쓰레기가 다른 주의 매립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재활용 경비를 초과하는 바람에 재활용 정책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하고, 분리수거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웃의 재활용 분리수거통을 들여다 보면, 쓰레기인지 재활용 품목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 계통의 재활용 포장에는 재활용 로고와 함께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 번호는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 후 재생품을 만들기 위하여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예를들면, 우리가 보통 페트 병이라 부르는 물, 쥬스, 또는 탄소음료 (soft drink)의 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 플라스틱 표시는 PET 또는 PETE (Polyethylene Terephthalate)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섬유(fiber)나 가구, 카펫 등의 재료로 재생된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수거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우리 동네의 경우에는 모든 병

뚜껑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재활용 #1, #2만)은 재활용 수거함에 넣게 되어있다. 용기에서 음식 찌꺼기는 항상 깨끗이 제거하는 동시에 종이, 플라스틱 포장지, 종이 골판지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묻어있으면 쓰레기로 처리해야한다. 음식 찌꺼기가 재활용 과정을 번거럽게 하고 자칫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about.com: Environmental issue 참조)

수거회사의 방침을 잘 알아야 하며 그 수거 방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선정하여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플라스틱 품목은 가정에서의 분리수거뿐 아니라 Giant Food Inc., Shopper's, Wal-Mart의 플라스틱 수거함에도 넣을 수 있다. 물론, 깨끗한 물건이어야 하며 종이 레이블이나 비닐 이외의 물건은 삼가하여야 한다.

- ·Newspaper bags (신문 주머니)
- ·Dry cleaning bags (세탁물 비닐 포장)
- ·Bread bags (식빵 주머니)
- ·Produce bags (야채 주머니)
- ·Toilet paper, napkin and paper towel wraps (화장지, 냅킨, 종이타월 포장지)
- ·Furniture wrap (가구 비닐 포장지)
- ·Electronic wrap (전자 제품 비닐 포장지)
- ·Plastic retail bags (hard plastic and string handles removed) (비닐쇼핑 백-손잡이 줄은 제외)
- ·Zip lock bags (remove the "zippers") - 집락 주머니 (집퍼는 잘라내고)
- ·Plastic cereal box liners (if it tears like paper, do not include) -시리얼통 안에 있는 비닐봉투(종이처럼 찢어지는 비닐은 제외)
- ·Diaper wrap (packaging) -기저귀 포장지
- ·Plastic shipping envelopes(no bubble wrap and be sure to remove any labels)- 비닐 우편물 포장지 (버블 포장지는 제외, 레이블은 제거할 것)
- ·Case wrap (e.g., snacks, water bottles) -물건 (간식, 물병 등) 포장지
- ·All clean, dry bags labeled #2 or #4 (깨끗한 봉투-재활용 #2, #4 표시된 것들)

휴대폰 재활용 (about.com: Environmental issues 참조)

계속 나오는 신제품때문에 미국인은 매년 평균 12억 개 이상의 공해물질 부속품이 포함된 휴대폰을 버려 약 65,000톤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한다. 다행히도 비영리 단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Call2Recycle, CollectiveGood**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의 website 주소에 zip code를 입력하면 폐기 휴대폰 수거함이 있는 장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전자부품과 기계를 판매하는 업소들도(RadioShack, Office Depot 등) 휴대폰 수거함을 준비해 놓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 (about.com: Environmental issues)

컴퓨터, MP 3, 휴대폰에 쓰여지는 재충전 배터리는 환경을 해치는 중금속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꼭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어야 한다. Office Depot, Best Buy, RadioShack, Battery Plus와 같은 업소들에서 이 일을 돕고 있다.

컴퓨터, 펙스, 복사 기계 의 잉크, 토너 재활용

Staple에서는 잉크 한 카트리지당 $3.00 상품권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Office Depot, US Post Office, FedEx office에서도 이러한 재활용 장려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업소는 돈도 지불하며 우편요금까지 내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들은 수거함을 준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품목들의 재활용 절차는 Earth911.com 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품목 이름과 zip code를 입력하면 가까운 재활용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안쓰는 물건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항상 생각하고 알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동아-부티 봄로거, 최유정 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의 재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립스틱➡색깔이 변한 액세서리를 닦는데 활용한다.

굳은 마스카라➡눈썹을 그린 뒤 마스카라 솔로 빗어주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에센스➡스프레이 용기에 물과 함께 섞어 머리에 뿌려 모발 보습제로 사용한다.

클린싱 크림➡가죽소파 클리너로 얼룩과 먼지를 제거한다.

원주 후원회 소식

사랑과 정성의 속 넣은 김장김치

장해영 〈원주가톨릭후원회 실장〉

아파트 문화가 없던 시절, 마당에 수도와 펌프가 나란히 있었던 한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춥기 전에 연탄도 몇 백 장 뒤에 쌓아 놓고, 쌀도 가마니로 광에 들여놓고, 마지막으로 김장을 해서 항아리를 땅에 묻어 김장광을 만들어 놓으면 월동준비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김장독을 바라보며 일곱 식구가 겨우내 먹을 양식이라며 걱정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너무 힘이 들어 며칠씩 앓아 눕곤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집, 장애인 생활 시설에 150여명의 가족들이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인 김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무리 현대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김장만큼은 기계의 손을 빌릴 수 없나 봅니다. 1,500포기의 배추가 들어오고 무와 함께 고춧가루, 기타 부재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 김장은 연중 어느 것보다 큰 행사입니다.

100여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첫날은 배추를 포개고 다듬고 절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봉사자들이 절인 배추를 깨끗이 씻어 다듬고 건져내기 위해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다른 한 팀은 배추에 넣을 무채를 썰고, 또 한 팀은 완전무장을 한 채 배추 속을 넣습니다. 원장 신부님(최기식 신부)도 격려차 나오셨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 배추에 속을 넣으십니다.

해마다 얼마간의 배추를 기부 받아 김장을 했지만, 올해는 추워지기 전에 일찍 서두른 탓에 배추를 기부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들어와 성인이 된 지적 장애우들은 해마다 하는 김장이지만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니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주방 수녀님은 오뎅국을 한 솥 준비하여 봉사자들의 새참으로 내어 놓습니다.

초겨울 햇살을 맞으며 천사들의 집 뜨락에 앉아 김장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유난히 남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철도공사 충북 본부에서 벌써 4년째 남직원들이 김장을 돕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원주햇빛 로타리 여성클럽 봉사단원들과 30여명의 전투경찰대원들도 함께 하였고, 인근 본당 신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김치에 담았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골고루 김치 속을 넣으면서 "맛있겠지? 맛있어야 할 텐데~" 하며 장애우들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 넘쳐 납니다.

올 겨울 천사들의 집 가족들은 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사랑의 덕으로, 맛있는 김치를 먹으며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브농장 살림터

송창근 〈살레시오의 집 직업재활 교사〉

충청북도 치악산 동남 기슭의 계곡 배론에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 '살레시오의 집'이 있습니다. 배론은 골짜기의 형태가 배 밑바닥 같이 깊고 길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1801년부터 시작된 천주교 박해때 신자들은 이곳으로 피해 들어와 화전과 옹기를 구워 생계를 연명하며 신앙을 지켰고 최초의 신학당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옹기터가 남아있는 배론은 한국 천주교의 성지이며 피정의 집이 있어 많은 이들이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봄가을에는 일반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원훈을 기초로 살레시오의 집 가족들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성인 지적장애인 6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동체 '살레시오의 집' (원장 이동훈 신부)이 이제는 50여명의 가족과 29명의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며, 직업재활시설 허브농장 '살림터'를 만들었습니다. 살림터에는 현재 25명의 정식근로인과 15명의 훈련생이 있습니다. 살림터의 근로인으로 취업된 가족들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허브하우스, 영농, 작업장, 허브사랑 까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살림터'는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곳', '생활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또한 '살리다'의 명사형인 '살림'은 '목숨을 살게 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살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집안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다시 살림)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 농업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농약과 비료로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병든 육신을 살리며, 생명을 키우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낌으로서 정신적 재활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살림터에서는 케모마일, 레몬밤, 민트 등 다양한 종류의 허브차를 친환경 자연농법으로 수확하고 허브차를 판매하는 '허브사랑' 까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까페에서는 장애인들이 서빙에서 판매까지 찻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까페에서는 집에서 끓여 마실 수 있도록 유리병에 넣은 허브차와 허브를 이용한 방향제 등도 판매합니다.

지난 6월에는 허브사랑 까페 2호점을 배론입구에 위치한 탁사정에 열었습니다. 허브사랑 까페2호점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커피머신을 지원받아 허브차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론성지의 허브사랑과 함께 살림터 근로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허브전문 농사꾼이 다 된 가족과 교사들은 많은 분들이 허브차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주 후원회 소식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정복희 알마마떼르 〈재가노인복지시설 작은꽃노인복지센터장〉

무연탄 생산의 고장인 폐광지역 도계. 폐광지역이라 하지만 2개의(경동, 대한석탄) 광업소가 아직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로, 농부로, 대도시의 공장 노무자로 살아오다 흘러 흘러 이곳까지 와 광부로 여생을 보냈다는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이 된 지금, 가족도 떠나고 진폐(도계읍에만 900여명등록)로 인한 호흡곤란때문에 구급차에 실려 수시로 병원응급실을 가야 하는 어르신! 작업 중에 갱이 무너져 팔다리를 잃고 의수족을 하고 사는 어르신! 실직으로 덩그러니 손주만 남겨놓고 가버린 자식을 생각하며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지하 600미터 막장에서 밤새 연탄을 캐고, 아침 퇴근은 작은꽃 센터로 하시는 봉사자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지하막장에 들어갈 때면 "오늘도 무사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하루를 즐겁게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광부아저씨들! 감동이 따로 없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 했던가 광부의 아내들은 가족들의 아침을 챙겨주고, 가계문을 잠시 닫기도 하면서 연탄배달, 도시락준비, 도배봉사를 나섭니다.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장마철에 대비하여 어르신댁 집수리봉사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날이면 빠짐없이 나오시는 봉사자들의 그 열정은 눈물 마를날 없는 어르신들께 며느리, 아들, 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가진 바를 나누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야하고, 가족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개인 비용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라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만 돌아 봐 주십시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리하였듯이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 옆에 다가가 함께 있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은 희망을 주는 일이며 인간에 대한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작은꽃노인복지센터'는 2004년 3월 도계성당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벗이 되고,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선교의 수호성인 '성녀 작은꽃(小花) 데레사'의 영성을 본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꽃 센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어르신과 일반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현재34명)를 파견하여 도움을 드리고, 지역의 120여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센터사업(어르신 일일보호, 도시락배달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150여명의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에서 하는 일을 믿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나누어주신 봉사자와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박예림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은 산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대상자들 중 3분의2가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은 함께 조를 나누어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단순히 도시락의 의미만이 아닌,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빈 도시락 속에 담긴 조그마한 종이편지에 적힌 고맙다는 뜨거운 인사 한마디에 감동을 받습니다.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어느새 날개를 단 것 같은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산 중턱만 올라가도 숨이 턱에 차서 담당자인 나도 헉헉거리며 쉬어가는 거리를 어르신들이 올라가 도시락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슴 속에 품은 큰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시락 배달은 어르신의 경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119 구조대원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홀로 사시거나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봉사자들은 도시락을 전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올해도 뇌출혈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모시는 일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제때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까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또한 도시락 속에 조그마하게 들어 있는 감사의 편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락도 감사의 편지도 아닌 우리들 마음속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 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 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후원 연결이 되면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703 994 3531 (한린다 안젤라)

민우 (9세)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요 팔이 많이 아프세요. 휴~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이 태산이에요." 큰 눈망울이 유난히 돋보이는 민우(가명)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전 팔을 다쳐 깁스를 한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대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가 제 키에 맞지 않아 앞섶은 벌써 물이 흥건하게 젖었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렸다는 뿌듯한 표정만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9살~ 아직 엄마 품에 안겨 한참 응석을 부릴 나이인데 또래보다도 훨씬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민우를 보면 가슴 한쪽이 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민우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일을 간다고 하신 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우는 자연스럽게 고령에 지병까지 있으신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할머니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우를 처음 만난 것은 올해 7월입니다.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을 밀집시켜 거주하게 했던 흔히 달동네라고 불리는 낡은 집. 지은 지 50년이나 되어 한 쪽 벽면이 쓰러져 가는 집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수줍게 인사하던 민우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행히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생계비가 나오지만 할머니의 병원 통원치료비, 민우의 교통비, 그 외에 생활비로 사용하면 민우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남지 않아서 할머니의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민우가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 죽는 건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우리 민우는 어디 가서 눈칫밥 먹지나 않을지 불안해서 내가 맘 편하게 죽지도 못하겠어" 라며 눈물지으시는 할머니의 손을 민우는 말 없이 꼭 잡았습니다.

민우의 꿈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어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꿈이냐고 되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이라는 두 글자에는 민우가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아픈 할머니를 돌볼 수도 있고 멋진 직업을 가져 돈 걱정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할머니께 선물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맑은 눈을 지닌 민우의 그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우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실 결연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장래의 민우 학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학습비와 생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관

오정준 (13세)

ㅁ 정준이네는 아버지, 어머니,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형 이렇게 단란한 네 식구입니다. 정준이네 가족이 작은 시골 소초에서 살게 된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정준이네 부모님께서는 한 때 서울에서 큰 의류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2005년 낯선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후 이웃의 도움을 받아 월세 집에서 생활하며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개월 한철 장사만으로 일년의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벅찹니다.

2006년, 힘겨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온 정준이네 부모님은 정준이가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아당뇨 치료를 위한 의료제품 구입비가 한달에 40-50만원 지출되며 하루에 4번 맞는 인슐린 주사로 인해 정준이의 팔은 멍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또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던 정준이는 얼마 전 청력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준이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검진비용, 의료기 구입비용 마련을 위하여 그때그때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력상실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이 어머니 또한 혈소판이 낮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나 자신의 건강은 뒤로한 채 언제나 정준이 걱정뿐입니다. 이런 정준이와 가족들에게 아직 사회에는 따뜻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가진 정준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안은미 (11세)

은미의 부모님은 평창, 정선, 영월의 5일장을 다니시며 야채장사를 하십니다. 술을 좋아하고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노동과 가사를 거의 책임지게 된 조선족 어머니는 세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만 무척 지쳐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인 은주와 은미는 학업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미래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것이 꿈인 은미는 명랑한 편이며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은미의 어머니는 일 때문에 가족들끼리 여행 한번 가 보지 못하고, 주거 위치가 시내와 떨어져 있어 주말에도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것에 늘 마음 아파하십니다.

혼자서 힘들게 세 자녀를 양육하는 은미의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은미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

오대성 (10세)

대성이네는 15평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8명의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아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대성이의 일본계 어머니는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팔아 생활비에 보태어 쓰기도 하지만,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간식을 챙겨드리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일을 좋아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대성이는 성격이 온순하고 심부름도 잘 하는 착한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자랑이십니다. 아버지의 월 200만원 소득으로 8명의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대성이가 다른 친구처럼 학습이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후원자 님을 기다립니다.

영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

이경륜 (11세)

경륜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경륜이가 어릴적 어머니의 도박 빚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빚을 변제하여 생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병환으로 아이들 둘을 양육하시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경륜이는 4학년이지만 깡마르고 체구도 아주 작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할머니가 물으셔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은 경륜이는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 상황에 조금이나마 조부모에게 미안함을 덜려고 경륜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젓한 경륜이에게 결연을 통해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민지희 (8세)

아버지는 공공근로를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지만 지적장애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셔서 큰언니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작은언니, 작은오빠가 지적장애 경계선상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초기까지 숫자와 한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똑똑하고 성격이 밝아 현재는 한글과 숫자에 대한 개념도 생겼고 자신감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꿋꿋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지희에게 힘이 되어주실 후원자 님을 찾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 님을 찾고 있습니다

안승현 (12세) · 안주현 (10세)

이 남매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여섯 식구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시는 어머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공공근로 일을 하십니다.

승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몇 번의 피부 이식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5학년이지만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는 도움교실에서 생활합니다. 겁이 많은 승현이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 때마다 열정적인 춤 솜씨를 뽐내곤 합니다.

주현이는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환경을 알고서 많이 다독여 주자 많은 이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주현이가 조금씩 바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생님을 도와주고 청소며 동생들을 돌보는 일까지 일등입니다.

선하고 예쁘게 자라는 승현, 주현 남매에게 후원자 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이민지 (9세)

민지네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와 함께 네 식구가 생활하는 조손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외지에 계시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불편하시며, 어머니는 민지가 영아시절에 도박으로 빚을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 때 생긴 도박 빚을 민지 아버지가 변제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환으로 아이들 양육이 어려는 상황입니다.

민지는 어려서 약물사고로 지적장애 2급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행동이 산만하고 본인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인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똑똑하고 학교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치료실 선생님은 부족한 어머니 사랑 때문이라며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면 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라 합니다. 사랑이 모자란 민지에게 가득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손혜미 (12세)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일용직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상한 부모님은 혜미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혜미는 얼굴도 예쁘고 워낙 조용한 성격으로 모든 일을 차분하게 스스로 잘 하는 편입니다. 착한 아이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모든 사람들이 혜미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도화지에 가족 그림이나 친구들 얼굴을 그려 선물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불편한 친구들을 먼저 도와주는 착한 아이 혜미는 요즘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동작도 잘 따라하는 미래의 태권소녀랍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신은경 (13세)

은경이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며 아버지와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시어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본어 강사를 하신다고 하나 수입은 많지 않고, 아버지는 가끔 일용직을 하시어 가정형편이 어려워 5남매와 부모님은 월 14만원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있는 은경이는 예쁜 외모와 조용한 성격을 지녔으며 인형놀이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천사들의 집에서, 은경이는 자기보다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예뻐합니다. 항상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천사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은경이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이현수 (8세)

현수는 태어날 당시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항상 혼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TV를 보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비디오 증후군 장애 1급을 받은 후천성 장애 아동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마찰과 불화로 천사 장애인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현수가 시설 입소 후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며 근근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현수를 보러 오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린 아동이어서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아동인데 충분한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현수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준다면 앞으로 현수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천사장애인요양원 추천

백경호 (8세)

경호의 아버지는 자신의 몸 하나 방어 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이십니다. 아버지는 고모가 운영하던 곳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잦은 마찰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어머니는 친척집에 경호를 맡기고 잦은 가출을 하여 경호는 이사람 저사람 손으로 옮겨 다니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약하신 아버지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점점 술로 인하여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친척들이 경호를 천사들의 집에 맡겼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경호가 처음 배운 것은 눈치를 보는 일 이었을겁니다. 매일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자식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모님 아래서 어렵게 성장하였지만 경호는 쾌활한 아이입니다.

경호는 잘 듣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듣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조차 읽을 수 없었던 아이였으나 지금은 보청기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경호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경호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 ~ 2009년 10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09년 9월
강대성 / 마리아	~2009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09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09년 12월
고경애 / 고석태	~2010년 2월
곽금순	~2009년 12월
곽종무	~2009년 12월
광숙조	~2009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09년 8월
구춘희	~2009년 12월
권순 (리오바)	~2009년 11월
금화열 / 로사	~2009년 12월
김경호	~2009년 12월
김관동 / 강미	~2009년 10월
김관동/관동한의원	~2009년 10월
김남현	~2009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09년 10월
김남식 (안드레아)	~2009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09년 12월
김동한	~2009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09년 12월
김명자 (수산나)	~2009년 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09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09년 12월
김미나	~2009년 8월
김민철 / 진아	~2009년 12월
김박철 (안젤라)	~2009년 12월
김성헌	~2009년 12월
김성화	~2009년 12월
김수연	~2009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09년 10월
김영연	~2009년 8월
김영애	~2009년 12월
김우경	~2009년 1월
김원정	~2009년 11월
김윤상	~2009년 5월
김재인 (안나)	~2009년 12월
김정욱 / 숙희	~2009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09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09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09년 12월
김종빈	~2009년 10월
김진석 / 소피아	~2009년 12월
김찬문	~2009년 12월
김창겸	~2009년 4월
김춘실	~2009년 10월
김호찬	~2009년 9월
김홍자 (아네스)	~2009년 11월
김화동	~2009년 12월
류익희	~2009년 12월
민들레회	~2009년 12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09년 12월
박규호 / 루시아	~2009년 2월
박민규	~2009년 11월
박봉임	~2009년 12월
박삼열	~2009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09년 12월
박정희 (카타리나)	~2009년 3월
박종J	~2009년 11월
박찬호	~2009년 12월
서영숙	~2009년 12월
서정길	~2009년 12월
소근화 (도미나)	~2009년 12월
소병각	~2009년 12월
손양조	~2009년 9월
송상훈 / 마리아	~2009년 12월
심외숙	~2009년 6월
안나희	~2009년 11월
안병화	~2009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안혁빈 / 데레사	~2009년 12월
양방우 / 정자	~2009년 12월
어도로테아	~2009년 12월
어진경	~2009년 12월
오성웅	~2009년 11월
오진환 (로마노)	~2009년 12월
우기업 / 데레사	~2009년 12월
원승철	~2009년 6월
유정식	~2009년 12월
윤정자	특별후원
은임순	~2009년 12월
이갑현	~2009년 10월
이강영 (데오도로)	~2009년 12월
이광호 / 경옥 / 미라	~2009년 9월
이기녕	~2009년 8월
이만수	~2009년 11월
이상일	~2009년 12월
이세혁 / 세실리아	~2009년 12월
이수연	~2009년 10월
이순남	~2009년 12월
이순용 (안젤라)	~2009년 11월
이승구 / 분다	~2009년 12월
이신규	~2009년 12월
이알비나	~2009년 10월
이용운	~2009년 10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09년 10월
이유정 / 이혁주	~2009년 12월
이은배	~2009년 8월
이정일	~2009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09년 12월
이태선	특별후원
이태영	~2009년 10월
이태욱 / 리타	~2009년 8월
임계빈 / 데레사	~2009년 10월
장경옥 / 윤성	~2009년 12월
장석진	특별후원
전미경	특별후원
전수일 / 글라라	~2009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09년 12월
정창조 / 루시아	~2009년 10월
조명규 / 데레사	~2009년 12월
조명규 / 조미란	~2009년 12월
조명규 / 조미화	~2009년 12월
조명규 / 조정현	~2009년 12월
조민주 / 조옥희	~2009년 10월
조봉순 (아가다)	~2009년 12월
조성수	특별후원
조영인 / 모니카	~2009년 6월
주삼성 / 레지나	~2009년 12월
채정연	~2009년 12월
최마리아	~2009년 12월
최문희 (카타리나)	~2009년 8월
최순주	~2009년 6월
최순희	~2009년 11월
최재근 / 가브리엘	~2009년 6월
최재근 / 광송혜	~2009년 6월
최재근 / 광지호	~2009년 6월
최재근 / 글라라	~2009년 6월
최재근 / 써리나	~2009년 6월
최재근 / 최진영	~2009년 6월
최재근 / 최진호	~2009년 6월
최재근 / 캐터린	~2009년 6월
최종걸	~2009년 10월
최쥬리 / 엘머	~2009년 5월
파티마사도직	특별후원
하명희 (말가리따)	~2009년 12월
하상회	~2009년 12월
한마리아	~2009년 12월
한정현	~2009년 12월
한중희 / 영희	~2009년 12월
허영숙	~2009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09년 12월
홍알벗	~2009년 11월
홍진원 / 김은숙	~2009년 5월
황원균 / 황영문	~2009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09년 12월
Garvey, Cheryl K	~2009년 10월
Reed, Julianna	~2009년 10월
Pierce, Young-Mi	~2009년 5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박영희 데레사	~2009년 12월
안순상	특별후원
대철 베드로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루치아 쉼터	
권영수 / 권점숙	~2009년 12월
박찬영	~2009년 8월
송승혜	~2009년 8월
안순상	특별후원
오승은	~2009년 8월
이데레사	~2009년 6월
이명구 / 수산나	~2009년 12월
이영희	~2009년 7월
이윤아 젬마	~2009년 8월
최윤옥	~2009년 4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돈현 (2 아동 결연)	~2009년 12월
바오로회	~2009년 9월
송경S	~2009년 5월
베론성지	
박봉임	~2009년 12월
북평성당	
김광호	~2009년 10월
김병윤	~2009년 11월
윤경자	~2009년 12월
북한돕기	
한귀병	~2009년 6월
분도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살레시오의 집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11월
안순상	특별후원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	~2009년 12월
김순지	~2009년 6월
김진아	~2009년 12월
박미송	~2009년 2월
성승옥	~2009년 10월
성찬용	~2009년 10월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11월
안크리스토퍼	~2010년 3월
이명자	~2009년 10월
이소영	~2009년 1월
이연철 / 박희임	~2009년 11월
편성대	~2009년 11월
한귀병 (토마스)	~2009년 8월
익명 H	~2009년 10월
서울장학결연	
권순희 (사라)	~2009년 8월
김쥬리	~2009년 11월
최병렬 / 최경희	~2009년 11월
안나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예샘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09년 12월
김글라시아 (3 아동후원)	~2009년 1월
김병윤	~2009년 11월
김용상	~2009년 11월
김지은	~2009년 11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09년 11월
바오로회	~2009년 9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09년 12월
서윤배 / 데레사	~2009년 12월
이도훈	~2010년 3월
이봉기	~2009년 12월
이세린	~2009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09년 12월
정우석	~2009년 7월
정일희	~2009년 12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차명자	~2009년 10월
최쥬리	~2009년 5월
한중희 / 영희	~2009년 12월
황덕수	~2010년 2월
황원균 / 황영문	~2009년 12월
원주 비안네성소	
강명희	~2009년 12월
구귀옥	~2009년 9월
금화열	~2009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09년 10월
김두하	~2009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09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09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마리아 팀	특별후원
박정희 (카타리나)	~2009년 3월
안순상	~2009년 12월
Reed, Juliana	~2009년 10월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11월
안순상	~2009년 12월
익명 C	~2009년 11월
천사들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청소년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고재오	~2009년 1월
고현주 (2명 아동후원)	~2009년 12월
김계실	~2009년 11월
김미정	~2009년 12월
김영식 / 김소영	~2009년 12월
노명아	~2009년 9월
익명 P	~2009년 12월
안 알렉스	~2009년 3월
이용선 (3명 아동후원)	~2009년 12월
정규임	~2009년 11월
최일지	~2009년 9월

흑빛공부방	
고경애	~2010년 2월
김순섭	~2009년 10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09년 12월
박완다	~2009년 12월
이진희	~2009년 11월
차창옥	~2009년 10월
최평란	~2009년 12월
네팔	
곽호인신부	~2009년 10월
김명철 / 소화	~2009년 12월
김안젤라	~2009년 12월
김휄리시아	~2009년 12월
변애린	~2009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09년 12월
이은배	~2009년 12월
정규임	~2009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09년 12월
Lee, Andy	~2009년 12월
에콰도르	
백승태 / 마리아	~2009년 12월
유보나 팀	특별후원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2009년 12월
변레지나	~2010년 11월
안순상팀	~2009년 12월
필리핀 빠야따스	
김두하	특별후원
김병윤	특별후원
김영희 모니카	특별후원
바오로회	특별후원
신후범	특별후원
안순상	특별후원
윤정자	특별후원
이기녕	특별후원
이상길 필립	특별후원
이주원 / 이은영	특별후원
이혁주	특별후원
장정화	특별후원
한영옥	특별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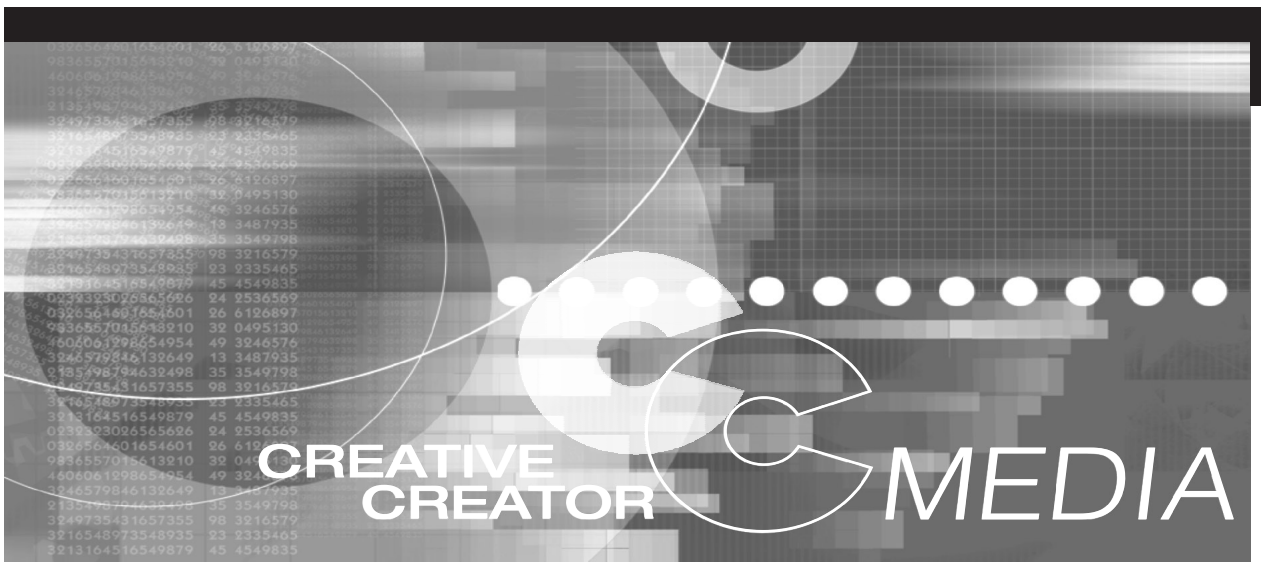
홍세실리아	특별후원
Song, Janet	특별후원
Han, John & Francesca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돈현	~2009년 12월
김리나	~2009년 12월
김명철	~2009년 11월
차명자	~2009년 10월
홍세실리아	~2009년 12월
Hi-Tech Bankcard Service	~2009년 11월

후원회지 광고후원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	2009년 1년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2009년 1년
김씨자동차	2009년 1년
윤경자 치과	2009년 1년
차명자 치과	2009년 1년
C & C Media	2009년 1년
Charlie H Hong, DMD	2009년 1년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2009년 1년
Washington Graphics	2009년 1년

사랑의 모금통

BP Short Food / 박진욱	2월
Ballston Cafe	7월
Best Seller Video / 김경춘	2·10월
Bethesda Cleaner / 박원균	2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용	6월
Capitol Cafe / 서 제임스	4·9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2·6·10월
Clifton Cleaner / 정미순	1월
Cody Gallery	4월
Express Seven Food / 박정복	2·4·6·8·10월
Fair Oaks Cafe	5월
Greatfalls Cleaner / 박원균	2·10월
Green Cleaner / 이수호	9월
Greensboro Corp Cafe / 이호	3·5월
John's Cafe / 김재영	4월
Jon's Cafe / 최용태	4·10월
Lexington Market / 안진군	6·7·8·9·10·11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4·6·10월
Maynine Inc / 용복순	1·4·6·10월
McLean Valet	2월
Monument Cafe / 최지돈	6월
NADA Cafe / Choi, Sandy	5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4·9월
South Washington Valet / 윤영자	4월
Subway / 이민석	2월
Sun Drycleaner / 권순	1월
Sunrise Cafe / 우희경	2월
Uptown Market / 김소피아	4·10월
Virginia Cleaner / 정세레나	4월
Warrenton Shell / 김동한	7·8·9월
Wow Deli / 임대식	2월
Yes! / 차명학	9·10월
강서면옥	2월
갤러리아 안경	4월
느미라지 미용실 / 박캐터린	7월
세라미용실 / 이정연	2·3·5·10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인쇄 문화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 - C&C MEDIA

한차원 앞선 인쇄문화를 선도해 가는 씨앤씨 인쇄소!
광고 기획, 종합디자인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인 최대의 인쇄 회사입니다.

CREATIVE CREATOR MEDIA

CREATIVE CREATOR MEDIA, LLC.
9425-C Mathy Drive, Fairfax, VA 22031
Phone 703.425.7800 / 703.425.7200
Fax 703.425.2800
E-mail : cncmedia@gmail.com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9년 3월 1일 ~ 2009년 10월 31일)

김미나(일반), 박삼열(일반), 염윤기(일반), 오민언(일반), 장석진(특별), 최재명(특별), Pierce Young-Mi(일반), 윤정자(일반), 김돈현(결연), 송경S(결연), 이세린(결연), 김인석(결연)

2009년 3월 ~2009년 10월분 후원금내역 : 총 $77,418

	2009년 3월	2009년 4월	2009년 5월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9월	2009년 10월	합계
총 후원금	16,090	7,897	9,505	4,999	6,853	5,942	4,423	21,709	$77,418
원주후원회	2,365	1,137	3,045	1,944	1,708	982	1,138	1,699	$14,018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0
대건의 집	100		100		100		100		$400
루치아쉼터	290		240	370	50	460			$1,410
북평성당	180	150	100	60	110	110	50	170	$930
북한		300	200			100			$600
살레시오의 집		120	120			120			$36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215	840	630	415	475	875	295	185	$4,930
서울장학결연	250	150	150	200	150	150	150	150	$1,350
원주복지관	1,780	780	2,460	990	2,090	770	990	990	$10,85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20	130	30	10	10	95		5	$300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30	1,100		100				200	$1,430
제천시 노인복지관	60	120	240	60		240	60	60	$84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960	450	450	570	120	600	360	630	$4,140
흑빛공부방	1,760	680	740	120	1,120	560	1,120	680	$6,780
목포 작은 꽃들의 집		1,440	60	60		180	60		$1,800
가뭄지역 식수지원 후원	5,000								$5,000
독거노인 난방지원								15,000	$15,000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복지부	1,000								$1,000
해외후원금									
네팔		200				600			$800
에쿠아도르								1840	$1,840
파푸아 뉴기니	980	200	840		820				$2,840

축하합니다

카리타스 후원회지 편집 Layout 및 카리타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포스터를 디자인 해 주시는 봉사자 백경화 님이 득남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새 가족 방준혁(Jaden)과 함께 백경화 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J. Galot

할만큼 했다고 생각 될 때라도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이 없어질 때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십시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한발자국만 더 내딛고 사랑하십시오

이기심의 껍질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
그 유혹을 깨고 나와
사랑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라도

눈을 감고 한 걸음 뛰어넘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 지쳤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1.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2.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3.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유폴라,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김 데레사, 노상문
고재오, 김명철, 차명자
윤경자, 김글라시아, 유자경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김데레사,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인 쇄 : 워싱턴 중앙일보

절취선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 특별후원( )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 $20( ) $30( ) $40( ) $50( ) 기타( )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신청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치 주 치 과 전 문 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라면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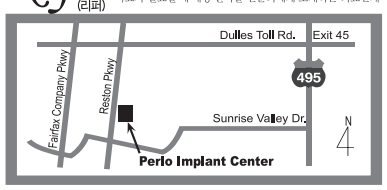
학력

Turfs 치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계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 김남식
Fair City Mall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끝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Fairfax MEMORIAL

"Service Above All"
Full Service Funeral Home and Crematory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WASHINGTON GRAPHICS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톤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델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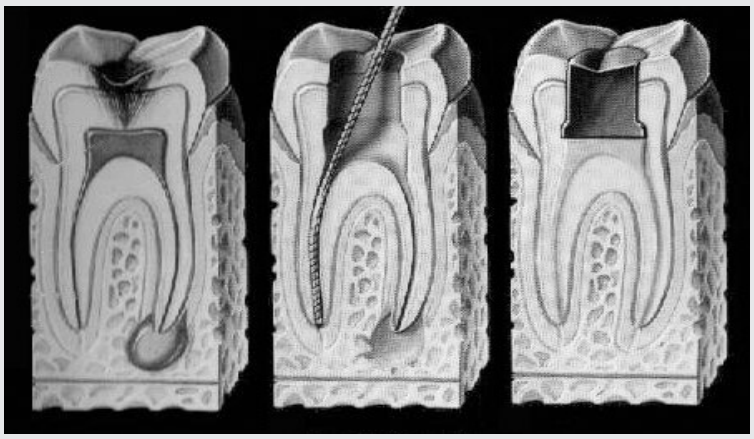
703.750.2884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훼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 소아과 | 부인과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 예방접종 |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WBS 워싱턴TV방송

공영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Cox 케이블 채널 30과 채널 830에서 방영되는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수요일 오후 9시 ~ 11시
09:00 – 생명의 말씀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09:30 – 건강플러스
10:00 – 오늘의 양식(온누리 드림교회 이근호 목사)
10:30 – 소망의 콘서트, 치유찬양, 문화콘서트(난장)

목요일 오후 9시 ~ 11시
09:00 – 특집다큐멘타리(한국방송통신위원회제공) / WBS초대석 (격주)
09:45 – 5분 메세지
10:00 – 생명의 말씀(이원상목사, 이광훈목사)
10:15 – 파워특강 방송과의 만남

일요일 오전 7시 ~ 9시
07:00 – 생명의 말씀(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07:30 – 생명의 말씀(분당초대교회 전태식목사)
08:20 – 오늘의 찬양
08:30 – 생명의 말씀(프란시스코 성공회 최영권목사) / 생명의 말씀(시애틀 형제교회 권준목사) (격주)

※ 이상의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 있습니다.

WBS 워싱턴 평화방송 프로그램

금요일 오후 9시 ~ 11시
- 평화방송 시작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활력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 PBC특강: 제 21세기는 서비스 시대 등 황창연신부의 강좌
- 활기차고 경쾌한 라인댄스 초급반 소개
- 성서 40주간: 복음서 강의(조화선 수녀)
- 함께보는 교회미술
- 박용식 신부의 '예수님 흉내내기' 강좌 등

※ 따뜻하고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방송 후원문의: 703-675-9681

(비영리기관이므로 세금공제 됩니다)